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 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84호 현대불교
2010년 5월 19일(음 4월 6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앞새 하나하나도 자기 뿌리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자리가 복잡해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활에서 참선이라는 것을 알 양으로 무척 애를 쓰는 것을 볼 때 참 잡개무량하고 어떤 면 너무 기쁩니다. 생활에도 도리가 있듯이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참 도리가 있어야 하고, 중심과 중도(中道), 중용이 있듯이 불가에서도 부처님 법을 진정으로 전수 받고 진짜로 내가 정각을 이룰 때에,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것이 틀리면 아니 되니깐요.

팔만대장경을 보기 이전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일체 만물만생이 죽었다 깨어나고 깨어났다 죽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사계절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그렇게 봄이면 피고 또는 늙은 가을이 되면 단풍이 지고, 그러는 게 있는가 하면 사계절을 푸르르게 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도 좀더 차원이 높으면 사계절을 푸르르게 살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100% 다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 되기가 어렵고 또 인간은 됐으나 아주 100% 인간이 돼야만이 진짜 인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린애를 탄생시켜서 놓으면 그냥 인간이라고 하긴 하죠. 그러나 100% 어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니죠. 그와 같이 여러분이 많지만 그 중에도 완전히 인간이 된 분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 될 뻔 된 분이 있고, 허허, 아직도 한창 자라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이루어도 견성한 것은 금방 태어난 아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둘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또 숨을 녹이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또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알기만 하면 건도가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목마른 데 줄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어야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둘 아닌 도리를 알았으면 둘 아니게 나를 줄 알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이것이 꼭바로 들어가야만이 되는 겁니까? 지금 컴퓨터나 전자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글자 하나만 틀려도 그것은 모두가 틀려 넘어갑니다. 숫자 하나만 틀려도 전부 틀리고요. 여러분, 현재에 사시면서도 그러시죠.

그와 같이 우리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선(行禪)이라고도 하죠. 지나 깨나 앉으나 서나니까요. 곧장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구(活句)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볼 때에 팔만대장경에 어떻게 그것을 다 쓸 수가 있겠습니까? 팔만대장경



그림 · 최주현

이 아무리 잘됐다 하더라도 삼세(三世)를 돌아다니면서 이 모든 병풍 둘러쳐듯 한 이 세계, 우주 만물이 자체는 아마 '팔만대장경은 저리 가라.' 할 겁니다. 왜? 팔만대장경 자체가 그냥 고정되게 써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볼 때는 글자보 보이거든요. 글자보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 글자 뒷면에, 백자의 뒷면에 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방 너머 세계가 있고, 서방 너머 세계가 있고, 남방 너머 세계가 있고 모두 이렇게 있듯이, 이 너머 세계가 다시 또 있고 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바로 직결하지 못하면은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학술적으로 하고, 경을 읽어서 한다면 문이 있는 것을 찾지만, 문이 있는 것 뒤에 문 없는 문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 없는 문을 찾기 위해서는 꼭바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통신이 되질 않아서 연결이 되

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에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모두가 없고 당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부터 알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부터 나로 생긴 거지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꼭바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또 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나를 이끌어가는 나의 선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놓으리니까 "참, 다 보지 않습니다." 이러거든요. 왜 다 보지 않습니까? 모두 자기가 하는 건데요.

모두 그 껍데기 속에 알맹이가 있습니다. 알맹이와 껍데기가 둘이 아니게 만날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말입니다. 옮겨 된 것도 자기가 한 거, 웃게 한 것도 자기가 한 거, 즐거운 것도 자기가 하는 거, 슬픈 것도 자기가 한 거, 자기가 있으니까 된 겁니다. 그게 모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렵게만 생각하

지 말고 간단히 나로부터 생각하세요. 잘하든 못하든 울든 웃든, 어느 누가 하는가? 그래서 자기로부터 상대가 생겼고 세상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어, 이런 거구나!' 자라가지고 '아! 세계는 이런 거구나!' 또 어른이 돼가지고 '아! 세계는 우주화가 됐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움죽거리고, 보고 들이고, 생각하고 하는 게 다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 아닌 자기가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자기 그림자와 자기가 서로 싸운 겁니다. 둘 아니게 싸운 거죠. "너는 내 껍데기 아니야?", 껍데기는 하는 소리가 "너는 내 알맹이 아니야?" 하고 말합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지금 공부해 내려가는 그 모두는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겁니다. 남이 해주는 것도 없고, 남이 주는 것도 없고, 헛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약하게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좀 가지시고 말입니다. 내가 없

다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나를 아주 얇게 생각을 하고 나는 빼놓고 부처님을 위에 모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거는 백날 가도 부처님 속에 같이 한자리를 못합니다. 알보지도 말고 높이 보지도 말고 평등하게 나와 둘 아니게 보세요. 그러면서도 바로 과거에 살던 자기 조상이기 때문에 그 자기 조상으로 인해서 자기 조상을 상봉을 한다면 바로 그계 견성입니다.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같이 할 때 그때 이제 성불이요. 일체 만물만생과 더불어 응신이 돼서 나를 때, 그때에 바로 열반경지까지, 구경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말하다 말고 저 넘어갔습니다. 말하다가요.

그래서 우리는 울어도 자기도 웃어도 자기도, 못해도 자기도 잘해도 자기도, 망해도 자기도 승화가 돼도 자기도요. '몽땅 놔버려야 한다.' 이런 것도 말입니다. 본래 몽땅 놓고 가는 겁니다. 왜냐? 내 몸속에 그렇게 자생중생들이 잔뜩 들어 있어서 같이 더불어 돌아가니까 그놈의 게 전부 공(空)했죠. 네? 혼자 하는 게 한 일경이도 없어요. 혼자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고 뭐 별게 다 혼자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 이거는 내가 했다고 내놓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얻어야 다 쓸 수가 있는 거지 다 얻지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남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꼭바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놓고 들이고, 들이고 내고 하는 그놈이 바로 자기 알맹이요. 즉 말하자면 공까지 속에 공, 허허허. 여러분이 공을 심어놓고 공이 익지 않았으면은 갈 때 그 속에 그 뭐니까, 그거? 뭐라고 그러죠? 그 장이 불어서 익지 않았으면 까기가 참 어렵죠. 다 익었으면은 아주 까기가 좋을 텐데 말이예요. 그것도 공부하는,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이 완전히 익었다 할 때는 공까지와 공이 따로따로 놓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까지와 공이 따로따로 놓아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해서 말이예요. 그래야만이 자유통계 공이 안에서 구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안에서 구를 수가 있어야만이 공까지를 벗어난 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이 벗어났기 때문에 무위도(無爲道)로써 무심도(無心道)를 그냥 중용을 한다 이겁니다. 들고 남이 없으면서 문도 없으면서, 벽도 없고

26면으로 계속

불

사단법인 한국불교 조계종 불기 2554년 나라안정 기원 불교도 대법회

제7대 종정, 총무원장 및 임원진 취임
종정 수경당 법일 대종사

원로 회의의장 단각종사 총무원장 대봉 대종사 종의회장 지암종사

◆ 일시 : 2010년 5월 27일 (음 4월 14일) 목요일 10시

◆ 장소 : 한국불교조계종 총본산 문경 백봉사

- 초대 의 말씀 -

귀의 삼보하옵고 불기 2554년 부처님 탄신을 봉축하오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불자여러분의 가내에 충만하옵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나라 안팎으로 몹시도 어렵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나라의 참된 일꾼을 찾는 이 중차대한 시절에 21세기 한국불교를 선도해가는 본한국불교조계종은 나라안정을 위한 불교도 기원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본 종단은 제7대 종정에 수경당 법일대종사를 추대하고 총무원장 및 임원진 구성에 따른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여 취임식을 봉행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불자님의 많은 동참으로 법석을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불자여러분의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한번 기원드립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불기 2554(2010) 5월 좋은날

사단법인 한국불교 조계종
봉행위원장 지연 합장

◆ 후원 : 문경시, BTN불교TV,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현대불교신문, 룸비니불교예술단

오시는길 :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새재C에서 마성방면 3Km 지점 백봉사 전화 : 1588-0408, 054-572-1034

(사) 한국불교 조계종 7대 임원진 명단

원로위원 : 성학사 무학스님 약사사 보연스님
불소리정사 현공스님 약사암 지암스님
우리지장정사 태흥스님

총회위원 : 보광선원 용주스님 해운정사 행운스님
법성사 선정스님 도선사 해명스님
관음사 화명스님

교구원장 : (서울 1교구) : 도각사 지광스님 (경기 2교구) : 황룡사 도성스님
(충청 3교구) : 약사사 보경스님 (전북 4교구) : 유심사 무휴스님
(전남 5교구) : 용운사 해양스님 (강원 6교구) : 명상사 동암스님
(경북 7교구) : 대각선원 지연스님 (경남 8교구) : 선봉사 관봉스님
(제주 9교구) : 대정암 태암스님 (부산10교구) : 약사암 지암스님

감사 : 관음사 명화스님
비구니 회장 : 용운사 해양스님
중앙신도회장 : 대항심
포교원장 : 수미정사 도관스님
사경원장 : 도각사 지광스님
교육원장 : 문주사 탄하스님
호계원장 : 화엄정사 정안스님
기획실장 : 을곡암 지연스님
재무부장 : 수월사 일공스님
총무부장 : 대원사 유원스님
교무부장 : 대선암 법정스님
사회부장 : 백련암 서경스님
문화부장 : 백암사 도연스님
감찰부장 : 등불사 지오스님
교임단장 : 태현사 원성스님
법사단장 : 어천김정석
사무국장 : 이소연

본 종단에 임종을 희망하시는 청정수행스님들의 동참을 적극 환영합니다.